세상을 보는 송호인의 눈

발행인 이기평 | 주간교수 이은경 | 편집장 전민지
주소 25242 강원도 횡성군 횡성읍 남산로 210 송호대학교
이메일 songhonews@songho.ac.kr
홈페이지 www.songho.ac.kr
2016년 11월 24일 목요일 | 14호

송호신문 창窓

축구부 U리그 왕중왕전 연이은 강팀 격파, 준우승 쾌거

- 대학 축구계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다 -



우리대학교 축구부는 11월 16일 오후 2시 고려대 녹지구장에서 열린 2016년 인천국제공항 U리그 왕중왕전, 고려대와의 결승전에서 2-0으로 져 2위를 차지했다. 하지만 이번 대회는 우리대학교 축구부의 새로운 진면목을 보여주는 계기가 되었으며, 대학 축구계의 새로운 다크호스로 떠올라 전문대학 축구의 역사적 한 획을 그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결승전 이전의 경기에서는 10월 28일 32강전에서 광주 호남대를 3:2로 꺾고, 10월 30일 16강전에서 충남 흥익대를 2:1로 제압하여 8강에 진출했다. 11월 4일 8강전에서 작년 우승팀 용인대를 2:1로 물리쳐 다크호스로 급부상했으며, 11월 6일 4강전 동국대와 연장 접전 끝에 3:2로 승리했다.

우리대학교 축구부 주장 김준형은 "매 경기에 부담 갖지 않고 즐기면서 하자는 마음가짐으로 인해 좋은 결과가 있었던 것 같다. 우승을 하지 못해서 조금 아쉽지만 경기에 최선을 다한 만큼 후회는 없다"고 소감을 전했다.

소선민 기자

횡성군 여성단체협의회와 산학협력 협약 체결

평생직업 교육, 횡성군 여성 권위 증진 추진 등 상호 협력강화하다



우리대학교는 지난 10월 13일 송호관 2층 세미나실에서 횡성군 여성단체 협의회(회장 이명옥)와 산학협력 협약을 맺었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기평 총장, 이명옥 회장을 비롯해 20명이 참석했다. 협력 주요 내용은 지역 여성들의 지위 향상을 위한 산학협력 프로그램 구축 및 체계 확립, 지역 네트워크 구성을 통한 횡성군 여성 평생직업 교육 및 사회활동 참여 기회 증진, 지역자원 개발 및 지역 협력 사업 정보 교류, 학술정보 및 간행물의 상호교환 등이다.

이명옥 회장은 "다양한 평생직업 교육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여성들의 권위 증진을 돕고 이를 통해 전문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 된다"며 "양 기관이 활발한 교류와 협력을 통해 상생 발전해 나가는 계기가 되길 기대 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기평 총장은 "대학의 교육 인프라 제공을 통해 횡성군 여성 평생직업 교육 및 사회활동 참여 기회를 증진시키는데 노력 하겠다"고 전했다.

신혜진 기자

서울 강서 라이온스 클럽 장학증서 수여식



지난 9월 22일 우리대학교 송호관 2층 세미나실에서 서울강서라이온스클럽 354-D지구의 장학증서 수여식을 가졌다.

이날 전달식에는 이기평 총장, 이기호 실장, 김익홍 사무처장, 박명철 교학처장, 김나영 평생교육원장 등 교무위원 5명과 서울강서라이온스클럽 전·현직 회장단 등 임원진 13명이 참석했다.

서울강서라이온스클럽은 우리대학교의 발전과 재학생들의 학업성취도 향상을 목적으로 타의 모범이 되는 학생 4명을 선정했다. 이번 장학금 수혜자는 4명(김하빈 보건행정과 13학번 외 3명)으로 소득분위, 성적, 학과장 추천 등의 기준으로 선정됐다.

한편, 강서라이온스클럽은 16년 전 우리대학교 설립부터 장학금으로 학교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한가람 기자



1박 2일 취업·진로 캠프 실시





우리대학교 취·창업지원센터는 지난 10월 13일부터 14일까지 1박 2일간 평창휘닉스파크에서 맞춤형 취업·진로 캠프를 진행했다.

본 캠프는 호텔외식조리과, 유아교육과, 치위생과를 대상으로 취업캠프는 호텔외식조리과 1학년, 유아교육과 2학년이 참가했으며, 진로캠프는 치위생과 3학년이 참가했다.

진로캠프 주제는 '나에 대한 자아 자부심 형성', '내가 바라는 목표점과 인생의 목표에 대한 진로 비전설정'이다. 주제에 따른 프로그램으로는 ▲나만의 강점 찾기 ▲나의 적성과 미래의 직업군 찾기 ▲가상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TIP ▲기본 자기소개서 항목을 토대로 작성 실습 및 코칭 ▲Road-Map 등으로 학생들의 적성 탐색 및 진로 설계의 기회를 마련했다.

취업캠프는 사전 면접 집중 프로그램, 유형별 취업 전략을 중점으로 취업 맞춤형 집중프로그램으로 진행 되었다. 취업 전략은 ▲업계 취업동향, 기업에 대한 스터디 방법 ▲기업 취업전략 로드맵 작성 ▲면접 유형별 준비 및 유의사항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첨삭 ▲사전 모의면접 영상 피드백 ▲사후 모의면접 등으로 진행됐다.

호텔외식조리과 1학년 정승환 학생은 "Road-Map 프로그램은 나의 꿈을 계획하고 이루기 위한 과정을 진지하게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 다른 사람들의 다양한 꿈도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이었다. 이번 캠프는 나에게 매우 의미 있는 시간이었고 자기 발전에 큰 도움이 되었다"며 참가한 소감을 전했다. 김해수 기자

서울도시철도공사 전문대학 수시입시 박람회에 참가하다



우리대학교는 지난 23일부터 24일까지 서울 지하철 7호선 반포역에서 열린 '서울도시철도공사와 함께하는 전문대학 수시입시 박람회'에 참가했다.

전문대학 수시입시 박람회는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와 도시철도공사가 '전문가를 만드는 힘, 전문대학'이라는 슬로건을 내건 행사로 학생과 학부모에게 진학정보를 제공하고자 열렸다.

행사에는 52개 대학이 참가했으며, 우리대학교는 박람회를 통해 1:1 맞춤형 진학상담 및 취업맞춤 컨설팅을 진행해 큰 호응을 얻었다.

최연임 입학처장은 "취업에 유리한 직업교육에 관심이 증대됨에 따라 전문대학 진학정보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며 "이번 박람회를 통해 학생들에게 관심 있는 입시정보를 제공해 입시결정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신혜진 기자

취·창업 전문가 초청특강

– 꿈을 찾고 내 인생은 달라졌습니다! –



지난 10월 5일 오후 2시 우리대학교 창조관 1층 종합강의실에서 드림파노라마 김수영 대표가 '미친 꿈에 도전하라'를 주제로 특강을 했다.

이날 특강은 유아교육과(1, 2학년), 방사선과(1, 2학년), 스포츠레저과(1, 2학년), 뷰티케어과(1학년) 등 총 120명의 재학생들이 참석했다.

강연은 '삶의 역경', '드림 리스트', '꿈을 찾는 방법', '꿈을 이루는 방법' 순으로 진행됐다.

김수영 대표는 "미래의 꿈은 조건이 갖춰져서 이루는 것이 아니라 꿈을 이루기 위해서 조건을 갖춰 나가는 것"이며 "꿈을 잡을 기회는 도처에 있으며 인생은 매 순간 내게 주어진 무한한 기회 중 내가 선택한 것들의 합이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더불어 학생들이 꿈을 크게 갖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한편 특강은 본교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지난 9월 21일부터 11월 9일까지 평생 교육의 날인 매주 수요일 취·창업 인식 개선 및 진로 설계 지원을 목적으로 진행됐다.

일정은 ▲9.21 D.C.G 안영일 대표 '백지 위에 그리는 꿈' ▲10.05 드림파노라마 김수영 대표 '미친 꿈에 도전하라' ▲10.26 청년장사꾼 김윤규 대표 '열정을 만나면 정열이 솟는다' ▲11.09 (주)로킷 유석환 대표 '바이오 3D 프린터의 현재와 미래'이다. 전민지 기자

제 15대 총학 선거 실시

우리대학교 제 15대 총학생회 정·부 학생회장 선거가 11월 10일 9시부터 20시까지 진행됐다.

이번 선거는 기존의 오프라인 종이 투표 방식에서 온라인 모바일 투표 시스템으로 변경돼 시간·장소·인력 등의 제약에서 벗어나게 된다.

총학생회 입후보자로 통과한 학생은 학생회장 후보 유아교육과 1학년 박예원, 부학생회장 후보 임상병리과 1학년 서하은이다. 이번 입후보자들은 셔틀버스 추가 운행 및 개선, 그라찌에 분식점 개설, 아식마차 및 푸드 트럭 시행, 체육 복지시설 향상, 각 학과 휴대폰 충전기 배치 및 택배보관함 설치, 공휴일 편의시설 제공 등을 선거 공약으로 내세웠다.

한편, 선거에서 당선된 정·부 학생회장의 임기기간은 1년으로 활동을 하게 된다. 신재영, 한가람 기자

학생생활 상담실 운영 안내

우리대학교는 본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대학생활 적응, 학업능력 향상, 인격 성장 및 가치관 정립, 진로 탐색, 직업 정보 등을 지원하고자 학생생활 상담실을 운영한다.

학생생활 상담실은 평일 9시부터 18시까지 운영하며 (12시~13시 제외) 송호관 2층 1202호에 위치한다. 상담은 전화 또는 사전 방문 접수 후 전문상담사와 개별 또는 집단으로 진행되며, 다면적 인성 검사(MMPI-2), 문장완성검사(SCT), 기질 및 성격검사(TCI), 적성탐색검사(HOLLAND), 성격유형검사(MBTI) 등 각종 전문 심리검사 도구를 활용하여 지원한다.

접수문의 : 033-340-1036(학생생활상담실)

전민지 기자

'횡성 한우를 부탁해' 요리실습 교육 운영



우리대학교 평생교육원은 지역특화교육사업의 일원으로 대동여자중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횡성한우를 부탁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교육은 매주 토요일마다 총 20주에 걸쳐 11월까지 이루어지며, 우리대학교 교수진으로부터 수준 높은 요리실습 교육을 받는다. 지역특산품인 횡성한우와 연계한 세부 프로그램으로는 '횡성한우 이야기', '횡성한우 샐러드 만들기', '횡성한우의 부위별 명칭과 특징 알기', '횡성한우 수제버거 만들기', '횡성한우 영양적 특성 알아보기', '횡성한우 파스타 만들기', '횡성한우 저장기간에 따른 품질, 부위별 조리법 알아보기' 등이다.

이에 김나영(호텔외식조리과 교수)평생교육원장은 "중학생들이 자신의 적성과 미래에 대해 탐색하고 설계하는 경험을 통해 스스로 꿈을 찾고, 지속적으로 자기성찰과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며 "체계적인 실습교육을 바탕으로 지역 내 한우축제는 물론 횡성JC 주관 요리 경연대회에 참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정현 기자

제 4회 '사복인의 밤' 행사 열려





지난 11월 11일 창조관 1층 종합강의실에서 '사복인의 밤' 행사가 진행됐다.

'사복인의 밤' 행사는 사회복지과 선후배간의 소통·화합·협력을 통해 학과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예비사회복지사로서 가치관 확립과 자질에 대한 함양 및 전문성과 책임성을 이해하기위하여 마련됐다.

이날 이기평 총장을 비롯하여 학과 교수, 사회복지과 동문 등 여러 내빈이 행사에 참석하여, 예비사회복지사들을 위해 아낌없는 격려와 축하를 해주었다.

행사는 1부와 2부로 나눠서 진행됐다. 1부는 사회복지과 이광모 학과장의 인사말, 이기평 총장님의 축사, 사회복지과 전임 교수인 이재용 교수와 이기호 교수의 격려사, 동문소개, 촛불 의식과 선서식이 차례로 진행됐다. 2부는 송사(1학년)와 답사(2학년), 시상식에 이어 1학년 장기자랑으로 행사가 마무리 됐다.

행사를 마치고 나서 김규석 학생(사회복지과 2학년)은 "사회복지사로서 가져야 할 마음가짐에 대해 다시금 일깨워 주는 뜻 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저희가 졸업한 후에도 '사복인의 밤' 행사가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신재영 기자

제 4회 나이팅게일 선서식



우리대학교 간호학과는 10월 27일 창조관 1층 종합강의실에서 '제 4회 나이팅게일 선서식'을 개최했다.

이날 나이팅게일 선서식에는 최금순 이사장, 이기평 총장, 선덕의료재단 김선심 이사장, 강원도 간호사회 손혜숙 회장, 학부모 등이 참석했다.

나이팅게일 선서식은 나이팅게일의 숭고한 간호 정신을 이어 받아 임상 실습 전 예비간호사이자 미래 간호전문인으로서의 책임과 긍지를 다짐하는 의식이다.

선서식에 참여한 간호학과 1학년 재학생 72명은 촛불 점화식을 통해 '사랑', '희생', '봉사'의 삶을 다짐하고 인간의 건강한 삶을 위해 헌신할 것을 다짐했다.

안미정 간호과 학과장은 "예비 간호사가 되었음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나이팅게일 선서식을 통해 학생들이 예비간호사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느끼고 마음속에 희망과 미래가 가득한 씨앗을 심어 앞으로 울창한 나무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를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신혜진 기자

관광(대명)리조트과 산업시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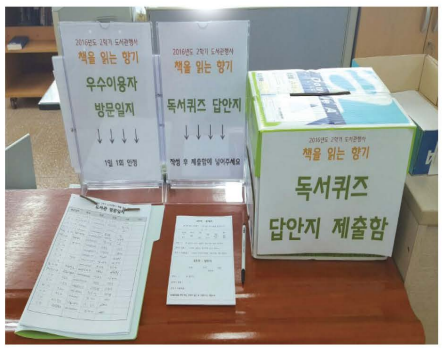
관광(대명)리조트과는 11월 8일부터 10일까지 경주 대명리조트와 거제 대명리조트로 산업시찰을 진행했다. 이번 산업시찰은 2박 3일로 진행되었으며 대규모 행사로 자리 잡았다.

1일차는 ▲경주 대명리조트 총지배인의 '미래의 대명레저산업을 선도 할 전문인으로서의 리더십' 강의 ▲CSM 서비스 모니터링 평가와 리조트 답사 ▲각 조별 PPT 발표를 통한 토의 및 감상문 발표순으로 진행됐다. 2일차는 ▲거제포로수용소와 바람의 언덕 견학 ▲거제 대명리조트 총지배인의 '직원들의 근무태도, 고객 감동 등이 업장매출에 미치는 영향' 강의 ▲CSM 서비스 모니터링 평가와 리조트 답사 순으로 실시됐으며, 마지막 3일차는 소매물도 관광자원을 답사하는 것으로 마무리 됐다.

관광(대명)리조트과 1학년 홍성돈 학생은 "이번 산업시찰을 통해 생생한 현장을 경험할 수 있었다"며 "특히 대명리조트 총지배인님의 강의를 통해서 전문 서비스인에게 요구되는 자세와 비전을 알아보고, 나의 미래를 재설정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며 산업시찰에 참가한 소감을 전했다.

한가람 기자

도서관 행사 – '책을 읽는 향기' 실시



우리대학교 도서관에서 재학생을 대상으로 2016년도 2학기 도서관 행사 '책을 읽는 향기'를 실시한다.

'책을 읽는 향기'는 학생들이 독서를 통한 인문학적 소양을 함양하고 도서관 이용 활성화를 통하여 도서관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번 행사는 10월 24일부터 11월 17일까지, 독서퀴즈, 다독자, 도서관 우수이용자 세 가지 부문에서 진행된다. 독서퀴즈 부문은 매주 월요일 12시 진선미관 1층 게시판과 2층 도서관 복도 게시판의 독서문제를 확인하고 대출대에 비치된 답안지에 정답을 작성·제출하면 매주 정답자 중 4-5명을 추첨하여 총 19명을 선정한다. 다독자 부문은 행사기간 중 전자도서관시스템 기준 대출권수가 가장 많은 학생 1명을 선정하며, 도서관 우수이용자 부문은 진선미관 2층 도서관에 비치된 방문일지(1일 1회 작성) 통계 기준 최다방문자 1명을 선정한다.

시상식은 11월 29일 실시될 예정이며, 상품으로는 독서퀴즈(문화상품권 각 10,000원), 다독자(문화상품권 50,000원), 우수이용자 (문화상품권 50,000원)을 지급한다.

김해수 기자

사회복지과, 횡성과 춘천으로 현장학습 다녀오다



지난 10월 28일 사회복지과 2학년 학생들은 횡성에 위치한 횡성군장애인종합복지관과 춘천에 위치한 강원재활원으로 현장학습을 다녀왔다.

이 날 일정은 각 기관의 설립 목적과 운영 프로그램 등의 간단한 설명식, 현장학습 기관 탐방, 동문 선배 멘토링 순으로 진행됐다. 멘토링은 우리대학교 사회복지과를 졸업해 현재 횡성군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근무하는 김길환(사회복지과 06) 사회복지사가 공부 방향 설정, 취업 준비 방법, 현장 근무의 어려움 등을 후배들에게 아낌없이 이야기 해주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현장학습에 참여한 박민규 학생은 "짧은 시간이었지만 현재 가지고 있는 고민거리가 해소 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며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선배를 만나서 이야기 할 수 있었던 시간이 매우 뜻 깊었다"고 전했다.

또한 김규석 학생은 "학교 강의는 이론 수업으로 진행이 되어서 이해가 되지 않거나 궁금한 점 등도 많았는데 이렇게 현장학습을 통해서 실제 기관이 어떻게 운영 되고, 어떠한 과정으로 프로그램이 만들어지는지 실질적인 부분들을 직접 경험할 수 있어서 매우 좋았다"고 말했다.

신재영 기자

방사선과, 제 7회 송방제 개최하다

우리대학교 방사선과는 11월 18일 16시 창조관 1층 종합강의실 '제 7회 송방제'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이기평 총장, 장수호 교목 실장, 대한방사선사협회 전상수 강원도협회장 등 내빈과 재학생 및 졸업생 1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송방제는 1,2학년 학생들의 학술발표와 예비방사선사 선서식을 축하하고자 마련된 행사이다. 행사는 총 2부로 진행되어 1부는 방사선과 제 6대 학생회장 조하늘 학생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이기평 총장의 축사, 내빈 축사, 학과장 격려사가 이어지고 방사선과 선서식, 2학년 논문발표, 1학년 실험실습 발표, 시상식 및 장학금 전달 순으로 진행된다. 2부는 '화합의 장'을 주제로 방사인들의 친목과 화합을 위한 다채로운 축하공연 및 장기자랑이 펼쳐진다.

송방제 축하공연을 준비하고 있는 김수영 학생(방사선과 1학년)은 "송방제는 선후배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모두가 함께 협력할 수 있는 소통의 시간으로, 방사선과 전학년 학생들과 교수님들 모두가 참여하는 뜻 깊은 자리입니다"라며 "저희 1학년은 현재 춤, 연극, 엔지니어를 각각 담당하여 송방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2학년 선배님들의 논문 발표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한 달 후에 있을 3학년 선배님들의 방사선사 시험 전원 합격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축하공연을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라고 응원하는 마음을 전했다.

박정현 기자

최승진 횡성농협 조합장은 우리대학교 선배이자 횡성농협의 리더로서 온화하고 열정이 가득한 모습이었다. 선배님은 언제나 학업에 대한 열정을 놓지 않으셨고, 그 마음가짐이 현재 농협조합장 자리에까지 오를 수 있었던 원동력이 된 것 같다. 기자는 이러한 선배님의 열정이 우리대학교 학생들에게도 잘 전달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인터뷰를 담아보았다.

"자신의 위치에 맞는 꿈부터 공략 하세요!"



최승진 횡성농협조합장
(사회복지과 04기, 전공심화과정 관광경영학과)

1. 간단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농협에서 일하기 전 대성병원 사무국장으로 15년 반을 근무하다 사회복지에 관심이 생겨 사회복지과 1기로 입학하여 졸업한 후 심화과정으로 관광경영학과를 마쳤습니다. 그 뒤 2013년도 연세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에 들어가 공부하여 올 8월 석사학위를 취득하였습니다. 농협은 고등학교를 졸업 하자마자 입사하여 99년도에 퇴직하였다가 작년도 3월 전국조합장 동시선거에 출마해 선출되었어요. 농협에서 20년을 근무하고 퇴직했다가 16년 만에 다시 돌아와 현재 이 위치에 오르게 되학습니다.

2. 우리대학교 입학 동기가 궁금합니다.

저는 대성병원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다 사회복지에 관심이 생겨 송호대학교 사회복지과 야간 1기로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과 심화과정을 공부하고 싶었지만 심화과정에는 사회복지 수업이 없었기 때문에 관광경영학을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언제나 배우고자 하는 열정만은 누구에게도 지지 않을 정도였기 때문에 사회복지학이든 관광경영학이든 언제나 열심히 하자는 마음가짐 하나로 송호대학교에 입학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사회복지에 관심이 있어 입학하였지만 심화과정인 관광경영까지 배울 수 있게 되어 저한테는 매우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3. 선배님의 대학생활은 어땠나요?

저는 직장생활과 학업생활을 병행해야 하는 직장인 학생이었습니다. 저는 취업이 목표가 아닌 배움을 목표로 학교에 다녔고, 그렇기 때문에 야간 수업을 열심히 들으면서 학업을 이어 나갔습니다. 이런 학업생활이 결코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학과를 졸업하기 위해서나 편입하기 위해서는 성적이 잘 나와야 했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출석률이 뒷받침되어야 했었습니다. 하지만 직장생활을 하다보면 장기출장을 나갈 일도 있고 어쩔 수 없이 수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겨났고 시험을 제대로 치루기 힘든 상황도 있었습니다. 이런 저의 학교생활을 보살펴 주신 건 교수님들이었습니다. 교수님들은 저와 같은 직장인분들이나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놓인 학생들을 배려하여 편의를 봐주시곤 하셨습니다. 그런 교수님들과 동기들로 인하여 송호대학교 생활을 무사히 마치고 졸업 할 수 있었습니다.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4. 기억에 남는 추억을 떠올린다면?

학교에서 하는 행사에 참가했던 것이 가장 기억에 남는 추억거리입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행사는 축제와 체육대회로 마치 자식들과 함께 축제와 체육대회에 참가하는 것만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행사가 진행될 때는 학생들의 활발한 모습과 간절하게 게임에 임하고 축제의 분위기를 즐기는 모습이 참 보기가 좋았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의 뜨거운 열기와 무언가에 집중하고 몰두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저는 학교에 대한 자부심이 크고 어디 가서 송호대학교를 졸업하였다는 것을 드러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학교 학생들이 얼마나 멋있고 아름다운 사람들인지 제가 직접 보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5. 후배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항상 기회가 닿는다면 우리 후배님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었습니다.

후배님들!! 우선 원하는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에 다가가기 위해 간절함과 절박함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눈에 보이는 요즘 학생들은 노력하지는 않고 타고난 금수저들만 부러워하고 자신들을 인정해주지 않는 현실만을 탓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우선 자신의 위치에 맞는 꿈부터 공략하세요. 자신의 위치가 중소기업 입사라면 중소기업 입사에 힘써 주세요. 당장 눈앞에 있는 기회도 잡지 못하면서 대기업에 무조건 입사해야 한다는 그러한 생각들은 버려주세요.

또 우리대학교가 무명이라서 안 된다는 핑계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만일 그렇게 생각한다면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는 마음이 삼류라고 생각하세요. 현재 우리대학교를 졸업하여 횡성에서 높은 직위를 가지고 생활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목표에 한 발 다가갈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길 바랍니다.

후배님들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저희 시절보다는 훨씬 힘들고 막막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간절한 마음을 갖는다면 그 마음이 묻힐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지금 가지고 있는 그 간절한 마음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리하여 우리대학교를 빛낼 수 있는 멋진 사람들로 성장하길 바랍니다.

한가람 기자



이수정 원장은 우리대학교 유아교육과가 신설되고 1기로 입학한 동문으로 현재 횡성에 소재한 '꾸러기 어린이집' 원장이자 횡성군 어린이집총연합회장이다. 유아교육과 학생이라면 기관의 장이 되는 것이 하나의 큰 꿈이자 성공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는가. 기자는 선배님의 성공 스토리를 송호인들에게 들려주고자 '꾸러기 어린이집' 문을 두드려보았다.

"송호대학교는 나의 자랑스러운 모교입니다"



이수정 꾸러기어린이집 원장
(유아교육과 02)

1. 간단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송호대학교 유아교육과가 신설되어 산소(02)학번으로 입학하여 현재 '꾸러기 어린이집' 원장이며, 횡성군 민간어린이집회장을 4년 연임하고 올해부터 횡성군 어린이집총연합회장을 맡게 된 이수정입니다.

2. 우리대학교 입학 동기가 궁금합니다.

입학 할 당시 저의 아이들이 3살, 5살의 나이로 영아기와 유아기의 단계였죠. 부모가 되면 누구나 아이를 잘 키우고 싶은 마음이 들기 마련인데, 사실 부모가 되기 전에 만반의 준비가 되어있는 부모가 어디에 있겠어요. 그래도 잘 키우고 싶었던 마음이었고 유아교육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이 가장 큰 이유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현재 저희 건물 1층은 어린이집, 2층은 학원으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제가 송호대학교를 입학하기 전에는 유아교육 전공이 아니었기에 학원을 운영했고, 1층은 다른 분이 어린이집을 따로 운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12년 전 그 분이 어린이집을 나가신 거예요. 생각해보면 여러 가지의 이유들이 모여서 송호대학교 유아교육과에 입학할 수 있었네요.

3. 선배님의 대학생활은 어땠나요?

당시에는 유아교육과가 2년제인 대학교가 많았는데 우리대학교는 3년제였어요. 1년의 시간을 더 쏟아야 했지만, 결코 3년이라는 시간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본 적 없었어요. 교수님들이 저희를 열정적으로 가르쳐주셨고, 참 즐겁게 학교를 다녔던 기억이 나네요. 학교가 재미있으니까 3년 내내 학교에서 장학금을 받고 유아교육과 수석으로 졸업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유아교육과는 기악 수업이 있죠? 제가 어릴 때에는 피아노를 많이 배우는 시절이 아니었어요. 동요를 연주하는 것이지만 애국가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곡을 피아노로 연주하면서 힘들어 했던 기억이 나네요. 그리고 심리 치료 관련 수업을 참 재밌게 들었던 기억도 나요. 수업 내용도 재미있었고 미술을 통해서 아이들 심리도 알아볼 수 있었죠. 그리고 관찰 수업이 있었는데 저희는 한 학기동안 매주 어린이집에 가서 관찰하고 평가 했거든요. 우천어린이집에서 했던 기억이 나는데 이렇게 실제 현장에서 경험을 통해서 배운 과정이 정말 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학교에서 실제적인 현장 수업을 많이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요즘 주변에 졸업 후 어린이집에 취업하고는 힘들다고 어린이집 교사 못하겠다는 선생님들이 많은 것 같아요. 사실 이론과 실제는 꽤 거리가 있거든요. 현장에서 직접 아이들을 만나보면 매순간 아이들이 다르기 때문에 어제는 천사 같았던 아이가 오늘은 너무나 선생님을 힘들게 할 수도 있어요.

특히 기본생활을 담당하는 부분에서 힘들어 하는 교사들도 있어요. 예를 들면 아이들이 구토를 한 후 뒤처리 과정이나 배변 훈련을 돕는 과정 등에서는 못 견디는 경우가 더러 있어요. 이런 점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학교가 지역과 연계하여 학생들에게 많이 훈련시켜 주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4. 기억에 남는 추억을 떠올린다면?

저는 학교를 다니면서 일을 병행해야 했어요. 게다가 살림하면서 아이들을 키우느라 몸이 몇 개라도 모자랄 만큼 힘들었어요. 그래도 학교를 즐겁게 다닐 수 있었던 이유는 동기들이 있었기 때문이랍니다. 당시 정원 40명 모두가 여학생이었고, 그 중 6명이 유부녀였는데요. 서로 공감대가 있으니까 참 재미있었어요. 그러면 안 되겠지만 학교 식당 밥을 먹기 싫을 때가 때때로 있잖아요. 그럴 때에는 각자 집에서 밥, 찌개, 삼겹살 등 간단하게 준비해 온 음식을 교수님들이랑 같이 나눠먹기도 했어요. 참 즐거웠던 기억이 새록새록 납니다.

5. 원장님으로서의 교육철학이 궁금합니다.

아이들의 '건강'을 가장 중요하게 봅니다. 신체의 건강함뿐만 아니라 정신의 건강함이 뒷받침 되어야 우리 아이들이 잘 클 수 있습니다. 요즘 다문화 가정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안타까운 점은 엄마는 집을 떠나고 조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는 아이들이 많아요. 어린이집 하원 시간에 엄마들이 데리러 온다거나, 부모참여 수업할 때를 보면 대개 엄마들이 많이 참여하는데. 이러한 다문화 가정 아이들은 엄마 부재에 따른 상실감이 매우 크답니다. 꼭 엄마의 부재가 아니더라도 다문화 가정 아이들은 다른 피부색이라든가 여러 가지 세상의 편견 속에서 건강하게 살아가기가 쉽지 않아요. 교육적 철학이라기보다는 그저 사랑스럽고 예쁜 우리 아이들이 건강했으면 합니다. 심신이 건강해야 모든 성장 발달 또한 잘 이루어질 수 있으니까요.

6. 후배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유아교육과 학생들은 가장 좋은 직업을 가질 수 있다는 자부심을 가지세요. 교사로서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얻는 성취감뿐만 아니라 나이를 먹어서도 할 수 있고, 아이를 키우면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고, 전국 어디에서든지 우리는 자격증만 있으면 일할 수 있어요. 더 나아가 해외에서도 얼마든지 일할 수 있어 우리가 가고자 하면 갈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답니다. 그리고 교사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를 지니길 바랍니다. 아이들을 사랑하고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서 상호작용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자세를 가진 선생님들은 늘 노력하고자 하고 교사로서 사명감을 갖게 됩니다. 마음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지식과 기술은 따르게 되어있어요.

그리고 요즘 취업난으로 청년들이 취업하기 어려운데 우리대학교의 각 과를 살펴보면 모두 전문적인 분야로, 자격증이 있으면 졸업하고 바로 취업으로 연계될 수 있는 현실적인 학과로 이루어져 있더군요. 여러분들이 평생직장을 가질 수 있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공부하고, 송호대학교의 이름을 널리 알렸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수정 원장님은 장시간의 인터뷰에도 미소를 잃지 않고 아낌없이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고자 하셨다. 인터뷰를 마치고 돌아가는 기자의 차편을 걱정하며 문밖까지 배웅해주시는 모습에서 따뜻한 선배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었다.

전민지 기자

만학도 인터뷰

송호대학교 사회복지과 강대선, 김옥연 부부

사회복지과에는 많은 성인학습자들이 열정적으로 강의를 듣고 있다. 그 중에서도 부부가 함께 학교를 다니는 강대선, 김옥연 학생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1.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송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2학년 강대선입니다. 횡성에서 태어나 성장을 했죠! 올해 4학년 9반(49살) 그러니까 내년이면 5학년(50살)이 되겠네요. 적지 않은 나이입니다. 아내 김옥연 학생과 둘이서 식당을 하고 있습니다. "머그면 맛있소" 재미있는 상호죠! 칼국수와 횡성한우 갈비살을 전문으로 하고 있어 이렇게 재미있는 이름이 지어졌어요. 나름 특허 등록까지 된 상호예요. 수업이 있는 날이면 오전, 오후 두 번씩 학교를 오르락내리락 하며 바쁘게 일과 수업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2. 우리대학교 사회복지과를 입학하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교내 산학협력단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 중 "파티플래너" 과정이 있는 것을 홍보 전단을 보고 접하게 되어 송호대학교에 첫발을 들여 놓았지요. 그 과정을 성실히 수료하고 직업에 충실하고 있는데 당시 알게 된 교수님께서 사회복지과 입학을 권유하셨어요. 이런저런 고민이 있었죠! 일과 학업 그리고 경제적인 부담, 당시 큰 아이는 대학교 3학년 둘째가 남매쌍둥이로 고2, 우리가 입학을 하여 2학년이 되면 쌍둥이 남매가 대학교 1학년 됩니다. 큰애는 군대를 가고, 하지만 한 집에 대학생이 네 명이나 됩니다. 이는 적지 않은 고민이었으나 늘 배움의 욕망을 져버릴 수 없어 아내와 의논 후 큰맘 먹고 함께 입학을 하여 친구이자 동기생처럼 공부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쉽게 말하지만 당시는 꽤 힘든 결정이었습니다.

3. 지금까지의 학업에 대한 소감이 궁금합니다.

입학을 하고 전공과목 공부를 하면서도 감이 잡히지 않아 1학년 때는 많이 힘들었어요. 하지만 유능하신 교수님들의 강의를 잘 경청하고 수업에 집중을 하니 시간이 지나면서 사회복지를 보는 시야가 우물 안 개구리에서 미시적으로 또 이제는 거시적으로 바뀌게 되었지요. 아마도 2학년 방학 동안 실습을 통해서 기관 방문도 하고 지역에 있는 시설, 협회, 복지관, 공동체 등 실제 복지현장이 이루어지는 곳을 방문 하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닌가 생각 됩니다. 또한 사회복지과 학과장님과 교수님의 인솔 하에 여러 기관 방문을 통해 이루어 진 것이라 생각 됩니다.

4. 졸업을 하고 난 후 계획이 어떻게 되나요?

졸업을 하고 나면 복지사업을 하려고 구상중입니다. 학과 교수님이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시죠. 우리 지역에서 주체가 법인이든, 조합이든, 사회적 기업이든 다양한 각도로 검토 중이며 모두 사회복지사로 구성되어진 사업체를 만들어 복지사로서의 윤리를 실천하며 소외된 이웃과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에게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교육을 통해 복지사회로 발전 하는데 열정을 다할 것입니다.

4. 사회복지과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우리 큰아이가 24살, 쌍둥이가 20살 그러니까 같이 공부하는 학생들이 성인 학습자 말고는 다 자식과 같은 나이죠. 자식이나 마찬가지예요. 처음부터 청춘학생들이 있을 공간에 우리 성인들이 같이 공부를 하니 부담이 될까봐 형, 누나로 불러 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래야만 세월의 벽을 좁히고 함께 공부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함께 해준 학우들에게 고맙죠.

이제는 졸업을 앞두고 각자의 길! 취업, 군 입대, 심야과정, 편입 등 각자가 선택해서 가겠지만 사회복지사의 역할은 다양해지고 일자리도 무궁무진하며, 미래에는 반드시 없어서는 안 될 최고의 직업이 될 거라 봅니다. 전문직으로서 각광을 받는다고 생각됩니다.

젊음과 열정 그리고 한창 두뇌계발이 되는 시기에 전문 사회복지사로서 많은 현장경험과 지식을 습득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부부가 노인이 되면 지금 젊은 학우들이 장래 훌륭한 전문사회복지사가 되어 케어를 해주기를 희망하여 봅니다.

5.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은 말씀 해주세요.

처음에 자기소개 할 때 우리 학우들에게 한 말이 생각납니다. "빨리 가려면 혼자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자고" 인디언 속담을 인용해서 얘기했는데 같이 입학한 학우나 군 제대 후 편입한 학우나 모두가 낙오 없이 잘 따라주고, 불편했겠지만 성인학습자와 함께 해 준 "학우들아, 고맙다!"라고 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2016년에는 사회복지과 (주간) 신입생 모집요강 없어서 서운 했는데 2017년에는 반드시 있기를 희망하여 봅니다.

마지막으로 항상 함께 공부하며 학우로서, 아내로서, 아이들 엄마로서 일인다역을 해 준 옥연 학생!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신재영 기자

송호대학교 방사선과 1학년 전창표

1.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한 시간의 드라마를 보고도 두 시간을 이야기 할 수 있는 커피와 대화와 음악을 좋아하는 서른 중반이 코앞인 송호대학교 방사선과 1학년에 재학 중인 전창표입니다. 휴우!!! 졸업하려면 아직 2년이나 남았네요.

2. 우리대학교에 오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평소 의학드라마를 모두 챙겨볼 만큼 의학에 흥미가 있었어요. 가까운 주위 의료 종사자분들의 이야기를 통해 관심은 더욱 깊어졌고 방사선사로서 병원에서 근무하고 싶다는 생각으로 보다 구체화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대학에 다녀야겠다는 결정을 하게 되었고 마침 가까운 송호대학교에 방사선학과가 있어 오게 되었습니다. 너무 깊게 고민 했었다면 이런 결정이 쉽지 않았을 텐데 마침 불쑥 찾아온 기회였기에 선뜻 이런 선택을 할 수 있었어요. 저에게는 적지 않은 나이에 학교에 입학한 이 선택이 새로운 도전의 문턱 이었거든요. 우리대학교는 소규모지만 그럼에도 짜임새 있는 교육과정이 준비되어 있고 가까이서 열정적으로 잘 지도해주시는 교수님들의 수업을 통해 의료계열학과의 최대 과제인 국가고시에 대한 걱정을 한시름 놓을 수 있었습니다.

3. 공부하면서 어려운 점은 있나요?

아무래도 풋풋한 20대 학우들에 비해 암기력, 기억력, 두뇌 회전력이 뒤떨어져 빠르게 내용들이 떠오르지 않아서 조금은 어려워요.

그리고 이건 성격 때문인데, 고집스러운 점이 있어서 이해가 되지 않으면 계속 붙잡고 있기도 하고, 그러다가 자의적 해석을 해요. 하지만 항상 새로운 걸 배우는 건 재미있어요.

4. 다시 학교를 다니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나요?

얼른 졸업하고 싶다는 조급함이 생기네요. 그렇지만 시간은 무언가에 푹 빠져 있어야 상대적으로 빠르게 느껴질 테니 학교생활에 더욱 매료되어야겠습니다.

나이차가 있다 보니 아무래도 혼자 동떨어진 약간의 괴리감이나 위화감, 세대차를 느낄 때도 있지만 주변에서 같은 과 학우들이 정말 많이 도와줘요.

'삼인행필유아사'라고 어린 나이지만 적극적이고 항상 밝은 점, 그리고 새로운 것에 두려워하지 않는 점들은 본받을 만하고, 그로 인해 저도 바뀌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유행하는 것, 재미있는 것 등을 알려주기도 하는 학우들에게 고마운 마음입니다.

5. 마지막으로 학생들에게 한 말씀 해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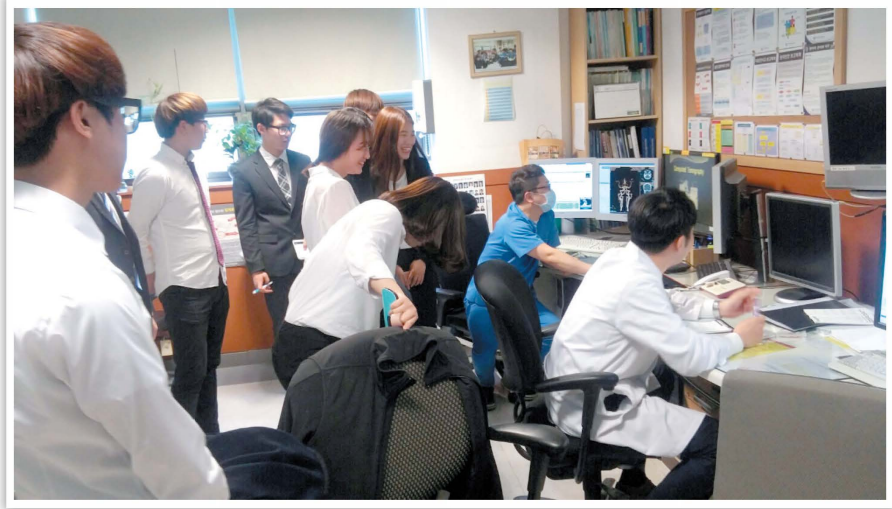
상상은 삶의 핵심이며, 다가올 미래의 시사회라는 말이 있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미래를 상상하며,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을 만큼 노력한다면 그 꿈이 현실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저는 지극히 평범한 일상을 바랬었기에 지금처럼 평범하다고 생각해요. 상상하지 않았고, 기대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여러분은 아직 젊으니 학교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미래에 대해 많이 상상하고 원하는 것들을 이루기를 바랍니다.

박정현 기자

학과 탐방

의학과 과학의 첨단기술로 국민건강보호증진의 일익을 담당하는
방사선과

방사선학은 의학과 과학의 결합이며, 최첨단 의학기술에 앞장선다고 볼 수 있다. 방사선을 이용하여 환자의 질병을 진단하고 치료하며 안전관리를 수행하는 전문 보건의료인을 양성하는 방사선과를 알아보자.









1. 방사선과에 대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우리대학교 방사선과는 의료방사선과학의 창의적 전문능력·인성을 갖춘 보건의료인 양성하는 것을 교육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방사선과는 방사선을 이용한 신의료장비로 환자의 질병 진단 및 치료와 안전관리를 수행할 수 있는 학문을 습득합니다. 이론 및 실습을 통하여 방사선사 면허를 취득할 수 있으며, 이를 직·간접적으로 임상·의료기관에서 적극 활용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방사성물질을 이용하는 '방사성물질 취급 일반면허', '감독자 면허' 등을 취득할 수 있으며, 방사선을 이용하는 의료기관 및 유관기관에서 연구 및 그 방사성물질 안전관리의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인재를 육성하는 의료기술의 대표적인 학과입니다.

2. 방사선과의 취득 자격증과 졸업 후 진로는 어떻게 되나요?

방사선과 취득 자격증을 말씀드리자면 면허(License)와 자격(Certificates)으로 구분되어 있는데요. 방사선과는 2년 수료 후에는 방사성동위원소 취급자 일반면허 시험응시 자격이 부여되며, 졸업하면 1년에 1회 시행되는 국가고시를 통해서 방사선사 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취득 면허로는 방사선사 면허, 방사성동위원소 취급자 일반면허, 방사선취급 감독자 면허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격으로는 국제전문방사선사와 국내전문방사선사가 있습니다. 국제전문방사선사는 의료영상정보관리사, 의료기기정도관리사, 방사선안전관리사, CT 전문방사선사, MR 전문방사선사, 임상초음파사(복부)가 있습니다. 국내전문방사선사는 임상초음파사(산부인과), 임상초음파사(유방), 투시조영 전문방사선사, 치료방사선사, 혈관중재 전문방사선사(일반), 유방전문방사선사, 임상초음파사(심장)가 있습니다.

졸업 후 진로는 방사선사와 RI 일반면허자, 산업체로 나누어집니다. 방사선사는 의료기관, 벤처기업, 의학 연구소, 보건직 국가공무원, 방사선의료기기 교육 및 관리자, 국내·국외 방사선 의료장비 및 의료기기 기업체로 취업이 가능합니다. RI 일반면허자는 의료기관(대학병원, 종합병원), 방사성동위원소 취급 기관, 원자력발전소, 항공 산업분야 등, 비파괴 검사 업체, 각 기업체의 안전관리분야로 취업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산업체는 기업체 안전진단 분야와 원자력 산업 분야, 중공업, 건설·토목업, 품질관리 등에 취업이 가능합니다.

3. 우리대학교 방사선과의 특징을 말씀해주세요.

우리대학교 방사선과는 의료기관 현장 탐방 프로그램 및 방사선의료기기 관련 기술 특강 등 다양하고 체계적인 산학협력연계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방사선을 이용한 의료기관 및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교육과정이 운영되어 다양한 면허취득 및 취업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PACS 시스템, DR장비, 초음파검사장비 등 첨단교육시스템 구축을 통해 산업체가 요구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는 현장실무중심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방사선과는 훌륭한 전문 보건의료인을 양성하기 위해 수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다. 이주영 교수는 "방사선과 학생들은 착한 성심과 인성을 가지고 있어 전문 보건의료인으로서의 자격이 충분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방사선과와 학생들의 밝은 미래를 위하여 파이팅!"라고 인사를 전했다.

신재영, 이한효 기자



교·수·칼·럼

가을은 참! 예쁘다. 그리고 너도 참 예쁘다.



이 정 순 교수
(유아교육과)

♬ 가을은 참 예쁘다. 파란 하늘이 너도 나도 하늘에 구름같이 흐르네. 나는 가을이 좋다. 낙엽 밟으니 사랑하는 사람들 단풍같이 물들어 가을은 참 예쁘다. 하루하루가 코스모스 바람을 친구라고 부르네. ♬

내가 좋아하는 노래 '가을은 참 예쁘다'라는 곡의 가사인데 이 아름다운 가을은 유난히 짧아 아쉬움을 더하는 계절이기도 하다. 산이며 가로수며 붉고 노란 잎으로 변해가고 있지만 이렇게 아름다운 가을을 느낄 여유도 없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시끄럽고 어수선하기만하다. 갑작스러운 비선실세의 등장으로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염려와 또 당장은 취업전쟁을 치러야 하는 우리 학생들에게는 이런 계절의 여유가 어쩌면 사치일지도 모른다.

나는 지난 주말 수업준비를 위해 디즈니사에서 만든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애니메이션을 다시 찾아보았다. 이 애니메이션은 작년 여름 개봉했을 때 나의 인생영화가 되었다. 기억에서 지워진 빙봉이가 무의식의 쓰레기장에서 기쁨이를 돕기 위해 어려운 결정을 하는 장면에서 왈칵 눈물이 흘렀는데 이번에도 이 장면에서 예외 없이 다시 눈물이 났다. 우리들은 누구나 처음에는 어린 아이였으나 그것을 기억하는 어른은 별로 없는 것 같다.

인사이드 아웃의 줄거리를 보면 모든 사람의 머릿속에는 감정 컨트롤 본부가 있으며 그곳에서 열심히 일하는 기쁨, 슬픔, 버럭, 까칠, 소심이라는 다섯 감정들이 있다. 살던 곳에서 이사를 한 후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하는 라일리를 위해 그 어느 때 보다 바쁘게 감정의 신호를 보내지만 우연한 실수로 기쁨이와 슬픔이가 본부를 이탈하게 되자 라일리의 마음속에 큰 변화가 찾아온다. 라일리가 예전의 모습을 되찾기 위해서는 기쁨이와 슬픔이는 본부로 돌아가야 하지만 엄청난 기억들이 저장되어 있는 머릿속 세계에서 본부까지 가는 길은 험난하기만 하다.

기쁨이와 슬픔이 그리고 핵심기억의 부재로 인해 라일리가 끊임없이 난관에 처하자, 결국 버럭이가 결단을 내린다. 다시 핵심기억들을 만들기 위해 미네소타로 돌아간다는 아이디어를 계기판에 넣었으나 그 생각을 실행에 옮기는 과정에서 라일리는 엄마의 지갑에서 카드를 몰래 훔쳐내어 정직 섬이 파괴되고 이어서 버스터미널을 향해 가는 길에 엄마에게 수차례나 전화가 오지만 결국 끝까지 받지 않고 미네소타 행 버스에 오르며 가족 섬이 파괴된다. 소심이와 까칠이가 달려들어 보았으나 계기판은 제 기능을 멈추고 회색빛으로 굳어져버려 어떤 감정도 입력이 되지 않고 그저 꽉 박혀버린 가출 아이디어를 실행에 옮기는 것 외에는 선택지가 없어져버린 것이다.

우리들이 일상에서 궁지에 몰렸을 때 내리는 결정들도 이와 별반 다르지 않다. 그동안 살아오며 내렸던 수많은 결정과 고집했던 신념들 중에서 라일리의 결정처럼 나 자신을 회색빛으로 몰고 갔던 것들이 얼마나 많았던가. 지금 입장에서 돌이켜 생각해 보면 그 결정과 생각들이 적절하고 현명한 것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지만 그 견해에 몰입되어 있던 당시에는 그것이 마치 세상에서 유일한 선택인 것처럼 느껴졌던 것이다.

어떤 이들은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거나 대기업에 입사하는 것이 행복해지는 유일한 길이라 결정내리고 그 목표가 달성되기 전까지는 결코 행복해하지 않으리라 다짐이라도 하듯이 그 아이디어의 전구를 자신 내면의 계기판에 굳게 꽂아 넣는다. 혹은 어떤 이들은 자신의 외모를 바꾸고 나면 아니면 직장을 옮기고 나면 근사한 집이나 차를 소유하고 나면 행복한 핵심기억을 만들 수 있을 거라 믿으며 전구를 계기판에 꽂아 넣는다. 물론 무언가 좋은 것을 갖기로 결심하는 것은 좋은 일이고 우리 삶에서 꼭 필요한 요소라 하겠지만 그 결심의 동기가 슬픔을 느끼기 싫어서, 우울함을 치우기 위해서, 불안을 완전히 없애버리고 싶어서, 라면 이야기가 많이 달라진다.

명백히 존재하는 자연스러운 감정을 배제하기 위한 결정이 라일리를 파국으로 이끌었던 것처럼 우리 역시 자신의 감정을 배제하기 위해 그렇게 결정을 내린다면 라일리와 같은 어려움에 처하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해법은 무엇일까? 라일리가 어떻게 제한적인 생각에서 벗어나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었는지를 살펴보면 그 답은 명확해진다. 어려움 끝에 슬픔이와 함께 본부로 돌아온 기쁨이는 회색으로 굳어있던 계기판을 그리고 소중한 핵심기억들을 슬픔이에게 맡긴다. 가출해서 즐거운 핵심기억을 만들겠다던 생각은 오직 최초에 외면당했던 감정인 슬픔에 의해서만 철회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가 억압해 온 감정, 바로 그 감정만이 우리의 삶을 잘못된 방향으로 인도하는 잘못된 판단과 편협하고 제한적인 신념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줄 수 있었기 때문이다. 억압됐던 감정이 존중받기 시작하면서 잘못된 생각은 존재의 근거 자체를 상실하기 때문에 너무나 간단히 휘발성으로 날아가 버렸고 그 자리를 대신해 내가 지금 놓인 상황에 꼭 맞는 적절하고 유효한 사고로의 지혜로운 전환이 저절로 이루어질 수 있게 된 것이다.

라일리의 경우에는 억압했던 감정이 슬픔이었지만, 사람에 따라서는 그게 분노일 수도, 불안일 수도, 혹은 기쁨일 수도 있을 것이다. 그것이 어떤 감정이건 그 마음을 우리가 존재 자체로 귀하게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 라일리가 처음 태어났을 때, 엄마 아빠는 라일리 안에 존재하는 기쁨을 느끼며 그녀를 기쁨 그 자체로 바라봐 주었고 그때 라일리의 안에서 기쁨이가 자기 자신을 깨달으며 눈부시게 환하게 빛나던 그 모습을 잊을 수가 없다. 자기 자신이 된다는 것은 지금 여기 있는 그대로의 내가 긍정이며 나의 마음이 슬픔일 땐 기꺼이 슬픔 자체가 되고 내 맘이 분노일 땐 분노 그 자체가 되고 불안이 있을 땐 불안 그 자체가 되는 것, 그렇게 모든 마음이 존중받을 수 있다면 우리의 존재는 언제나 생생히 살아 숨 쉬며 환하게 빛날 수 있을 것이다.

몇 해 전, 우리 사회에는 힐링 열풍이 몰아쳤으며 위로의 메시지가 넘쳐났고 너도 나도 다친 마음을 치유하자고 입을 모았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상당수의 전문가들조차도 더 이상 우울해 하지 않는 것, 더 이상 화를 내지 않는 것,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는 것을 치유라 믿었다. 말하자면 어떠한 부정적인 감정도 경험하지 않게 만드는 것을 치유라 정의내리고 있었다. 그러나 치유에 대한 올바른 정의는 하나의 감정에만 치우쳐 고정되지 않고 여러 감정이 두루 자리바꿈하며 흐를 수 있게 되는 것이며 치유란 상황에 적합한 마음이 어떠한 차별도 없이 자유로이 경험될 수 있도록 마음을 허락하는 것이어야 한다.

영화 초반에 기쁨이는 슬픔이를 쓸모없는 존재로 여긴 결과 슬픔이를 사사건건 제지하고 없앨 수만 있다면 영원히 없애고 싶어 한다. 그런데 소위 말하는 긍정적인 감정과 부정적인 감정은 그 각각이 온전하고 존귀할 뿐만 아니라 그 둘을 분리하는 것조차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그 둘이 결코 나눠지지 않는다는 것을 영화에서는 슬픔의 파란색과 기쁨의 노란색이 섞인 새로운 핵심기억을 기쁨이와 슬픔이가 함께 만들어내는 장면을 통해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고자 한다. 가을은 참 예쁘다. 여러 고민을 안고 살아가는 우리들이지만 내 맘속에 들리는 작은 소리들에 귀 기울이고 외면하지 않는 너와 나도 참 예쁘다.

새로운 얼굴 유아교육과 최다은 조교선생님

1. 조교님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송호대학교 유아교육과 13학번으로 올해 졸업했고, 이번에 유아교육과 조교로 일하게 된 최다은이라고 합니다.

2. 송호대학교에 오게 된 계기가 있습니까?

졸업하고 진로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었는데 마침 제가 존경하는 유아교육과 조희정 학과장님께서 제안해 주셔서 유아교육과 조교로 오게 되었습니다.

3. 유아교육과 학생들에 대한 인상이 궁금합니다.

함께 대학교를 다닌 후배들이라서 친숙한데 이전에는 잘 알지 못했던 후배들도 선배가 조교로 와서 그런지 굉장히 반갑게 맞이해주더라고요. 예전에는 가볍게 인사를 나누었다면 지금은 후배들과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게 되고 친해질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그리고 1학년 학생들은 처음 만났을 때 분위기가 굉장히 활기찼어요. 또한 개성이 강한 친구들도 많아서 인상에 많이 남았는데 젊음의 혈기가 굉장히 부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4. 조교님이 하시는 일이 궁금합니다.

현재 3학년 학생들은 유치원 실습을 진행하고 있고, 2학년 학생들은 겨울 방학에 어린이집 실습을 하게 될 예정이어서 실습 관련 지원 업무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제가 생각하고 있던 조교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학생과 교수님 사이에서 소통을 돕는 역할을 해내는 것이 조교의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원활하게 잘 이루어지고 있어서 보람됩니다. 아직은 업무가 손에 익지 않았으나 얼른 적응해서 학생들이 불안해하지 않게끔 도움을 주고, 믿을 수 있는 조교가 되는 것이 목표입니다.

5. 마지막으로 학생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려요.

유아교육과는 교사가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배우고 준비하는 과정으로, 영유아 성장·발달에 기초한 심도 있는 이론을 공부해야 할 뿐만 아니라 계속 모의수업을 준비해서 시연하고, 실습도 두 번씩 다녀와야 해요. 저는 선배로서 이 과정을 먼저 겪어보았기 때문에 여러분이 힘들다는 것을 잘 알고 있고, 이 모든 과정을 겪으면서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도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어떤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힘들었지만 잘 이겨냈으니 여러분도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말라고 꼭 이야기 해주고 싶어요.



그리고 우리대학교 학생 모두에게는 학교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라고 말하고 싶어요.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미련이 많이 남거든요. 사회에 나가보니까 학생 시절이 가장 좋다는 말이 맞더라고요. 여러분! 앞으로 공부도 열심히 하고, 다양한 학교 행사에 참여해서 즐기고, 노력한 만큼 성공도 해보고, 실패도 많이 겪어보면서 더욱 성장하길 바랍니다.

전민지 기자

학생들의 이야기 '마지막 학기'를 보내며

관광(대명)리조트과 1학년 박 지 수

우리 과는 2년제이기 때문에 1학년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굉장히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지금은 동계 실습을 나가기 전 바리스타 자격증, 조주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공부하고 있는데 자격증도 꼭 반드시 취득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그리고 내년에 신입생이 들어오면 도움을 줄 수 있는 선배가 되고 싶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1학년의 마지막 학기 동안 더 많이 배우고 동기들과도 많은 추억을 남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방사선과 1학년 최 승 현

어느덧 1학년이 지나고 마지막 기말고사가 다가오는 만큼 더욱 긴장되는 것 같아요. 3학년 선배님들도 국가고시가 얼마 안 남았고, 준비하시는 모습을 보면 저도 더욱더 긴장이 됩니다. 학기 초에는 국가고시를 생각도 못하고 있었는데 국가고시를 보는 시기가 다가오자 저도 국가고시를 위해 열심히 준비를 해야겠다는 각오가 생겼습니다. 1학년의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지만, 지금부터 열심히 공부하여 국가고시에 합격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방사선과 1학년 김 진 수

약 한 달 정도밖에 남지 않은 1학년 생활이 아쉽습니다. 이제 곧 군대도 가야하기 때문에 2학년이 되면 지금처럼 놀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남은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해서 공부도 열심히 하고 놀기도 열심히 하면서 남은 시간을 알차고 보람 있게 보내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군대 가기 싫어요~!

치위생과 1학년 김 슬 비

입학한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벌써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나 마지막 학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2학년이 되어서 실습을 나가야 하는데 정말 믿기지가 않아요. 치위생사가 되는 길에 한 발짝씩 더 앞으로 나가는 것 같아서 설레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마음이 무겁습니다. 마음이 무거운 이유는 그만큼 감당해야 하는 일이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1학년, 다가올 미래를 위해서 계획을 철저히 세워 실행하는 태도를 기르고 봉사도 하면서 내면을 키워나가야겠다고 다짐합니다.

호텔의식조리과 이 주 하

벌써 1학년 마지막 학기가 끝난다고 생각하니 아쉬운 마음이지만 한편으로는 새로운 1학년 후배들을 만날 생각에 벌써부터 들떠있습니다. 학기 중에 열심히 자격증을 취득하려고 마음먹었는데 바빠서 미처 따지 못한 자격증들이 있습니다. 이제 방학까지 얼마 남지 않았지만 지금부터 열심히 자격증 관련 공부에 집중하여 꼭 졸업할 때까지 한식, 중식, 일식, 양식, 제과제빵 자격증을 모두 취득하고 싶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 12회 '횡성 한우축제' 성대하게 열려







횡성 섬강 일원에서 지난 9월 30일부터 10월 4일까지 총 5일간 '제 12회 횡성한우축제'가 성대하게 열렸다.

횡성한우축제는 횡성군에서 매년 대규모로 개최하는 대표 행사로 횡성한우의 맛, 좋은 가격과 품질 등 횡성한우의 우수성을 알리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번 축제는 '삼시세끼 횡성한우, 어디까지 먹어 봤소'를 주제로 다양한 먹거리, 볼거리, 즐길 거리를 풍성하게 마련되어 90만 여명의 관광객이 다녀간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횡성군은 주변 순회셔틀버스를 오전 10시부터 22시까지 10분~15분 간격으로 운영하여 횡성군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의 편의를 도모했다.

또한 먹거리마당, 한우문화마당, 지역홍보마당, 흥겨움마당과 함께 다양한 퍼포먼스와 퍼레이드를 선보이는 등 볼거리와 먹거리, 즐길거리 등으로 풍성하게 마련했다. 먹거리마당은 한우고기 전시판매, 대형 셀프식당, 요리체험, 다양한 음식점 등, 한우문화마당은 횡성한우를 알리는 한우 주제관, 소 밭갈이 체험, 외양간 체험 등, 지역홍보마당은 가족체험 행사, 농산물 전시 및 판매, 귀농·귀촌지원 홍보 등, 흥겨움 마당은 추억의 고고장, 가면무도회, 어린이 놀이터, 불꽃놀이, 축하공연, 한우퍼레이드 등으로 남녀노소 모두가 어울려 즐길 수 있는 행사로 진행됐다.

체험행사로는 LED 빛조명 축제, 섬강 힐링 족욕장, 머슴돌 들기대회, 스탬프 투어, 로데오게임, 코뚜레 제작 및 한우 그리기, 소시지 만들기, 전통주 무료시음 등 다양한 행사로 이루어졌다.

한편, 이번 축제기간 총 매출 규모는 40억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추산됐으며, 횡성한우축제 성공 개최를 일군 여러 지역 기관·단체들이 수익금을 기탁하거나 이웃을 돕고 있다. 전민지, 이한효 기자

횡/성/소/식

횡성문화예술회관 풍성한 문화예술 공연 선보여

횡성읍 횡성문화예술회관에서 11월 4일부터 12월 29일까지 두 달 동안 문화예술 공연이 열린다.

이번 공연은 무료로 운영되어 횡성군민은 물론 인근 지역 주민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공연 일정은 11월 4일에 해설이 함께하는 가족음악회 '동물의 사육제'가 열린다.

10~11일에는 오케스트라의 섬세한 음악과 그림자극이 어우러진 '그림자극과 함께하는 클래식 음악동화'가 펼쳐진다. 17일에는 각설이의 삶을 담은 연극으로 30여 년 동안 인기를 끌어온 '품바시대', 24일은 마임과 저글링, 비트박스 등 코미디 연극 '옹알이쇼'가 열린다.

또한 12월 2일에는 셰익스피어의 '한여름밤의 꿈'을 국악으로 재탄생한 공연을 선보이며, 6일에는 세계적인 성악가 김동규와 국악소녀 송소희의 '김동규와 송소희의 어느 멋진 날에' 공연이 있다.

이어 12일은 코리안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클래식 향연, 17일은 정동극장 전통 창작극으로 한국무용과 연희·무예·소리가 어우러진 환상적인 퍼포먼스 공연 '율-가온', 23일에는 사물·비보이·국악이 합쳐진 퓨전국악공연 '오복락락 콘서트', 29일에는 횡성청소년교향악단 송년음악회가 열린다.

▶공연예약 : 횡성군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www.hsg.go.kr) - 열린마당 - 공연예약.

전민지, 김해수 기자